

대한상공회의소 APEC 경제인 행사 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 감사 배경

- APEC CEO Summit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비위 의혹 언론보도 등에 따른 감사 요청으로 감사실시

☐ 감사 기간 : '26. 1. 8. ~ 1. 23.(12일간)

☐ 처분요구일 : '26. 3. 20.

2. 감사 결과

- (숙박비 횡령 미수 등) 숙박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348만원)을 요구한 사실과 내부 결제 없이 숙박업소와 계약 및 결제 등 숙박비 처리 관련 일부 부적절한 사항 확인
- (대행사 유착) 행사 관계자가 대행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평가에 개입, 업체 선정 결과가 변경되는 등 유착 의혹 확인
- (정산 미흡 등) 행사 준비과정에서 비용통제 조치가 없었고, 사업비 세부 증빙자료 없이 정산을 확정(106억원)하고, 정산금액 집행을 위해 사후 수의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일을 행사 전 날짜로 임의 표기한 사실 등 확인
-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15건을 처리한 사실과 2025년 대한상의 하계포럼 시, APEC 홍보부스 운영 비용을 분할하여 일부 금액만 먼저 계약하고, 나머지 비용은 APEC CEO 서밋 본행사 정산에 전가한 사실 등 확인

- **(숙박시설 관리 부실)** 수요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숙박 시설 이용률이 저조(크루즈 호텔 : 18%, 아난티 호텔 : 37.6%) 하였고, 사업 목적과 달리 공실을 대한상의 임직원들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확인
- **(과도한 예비비 편성)** 행사 준비 시 사업계획 및 집행 불확실성을 이유로 본예산(사업비의 41.4%)과 추경(사업비의 59.6%)에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한 사실 확인

3. 조치내용

- 숙박비 횡령 미수 및 대행업체 선정 입찰 관여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문책, 통보(인사자료) 등 조치하고, 기타 다수의 직원에 대해서도 비위 수위에 따라 “문책·경고·주의” 조치를 요구
- 정산금액 대비 숙박비를 초과 결제한 관련자에게는 해당 비용(19만원) “환수” 조치를 요구
- 일반경쟁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회계규정」 개정, 올바른 회계 질서 정립을 위한 예비비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통보”
- 빗나간 숙박 수요예측으로 관련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 목적과 달리 공실을 대한상의 임직원들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